동아시아 문자, 문자예술의 꽃을 피우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문자, 미를 탐하다

양세욱 지음

‘쓰고, 새기고, 꾸미는’ 예술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일까. 바로 문자예술이다. 그렇다면 문자예술의 오브제는 무엇일까. 말 그대로 ‘문자’다.

오늘의 우리는 매일매일 문자와 벗하며 산다. 현대인들은 문자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것들이 문자와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무수히 많은 문자를 접한다.

양세욱 인제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는 문자를 일컬어 “말이라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자 강을 건너기 위해 빌려 타는 뗏목”이라 말한다. 지극히 시적인 표현이다. 양세욱 교수는 또 이렇게 언급한다.

“사피엔스가 기억의 아웃소싱을 위해 개발한 수단이 문자다.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주목해야 마땅하고 강을 건넜다면 뗏목은 버려두고 떠날 일이다. 하지만 동아시아에서는 달과 함께 손가락을 주목했고, 강을 건너는 일과 뗏목을 타는 일은 둘이 아니라고 여겨 왔다.”

양 교수가 이번에 펴낸 ‘문자, 미를 탐하다’는 문자예술의 꽃을 피운 동아시아 문자를 조명한다. 저자는 동아시아가 문자를 다양하게 활용한 문자예술을 발전시켰다는 논리를 구체화한다.

스스로를 규정하는 내용이 책의 성격과 적절히 부합한다. “동과 서, 고와 금, 문(文)과 이(理)가 만나 때로 스며들고 때로 불꽃이 튀는 황홀경에서 공부의 보람을 찾는다”라는 표현은 이번 책에서 저자가 조망하고자 하는 문자의 세계를 대략 짐작하게 한다.

저자는 글을 쓰는 행위가 아니라 글을 쓰는 행위를 예술로 발전시킨 지역은 동아시아가 거의 유일하다고 본다. 유네스코는 2009년 중국에서 신청한 서예와 전각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한 바 있다. 그에 앞서 2008년 장예모 감독이 북경올림픽 개막 공연 당시 연출한 ‘서예’는 지구촌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저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문자들 중 가장 오래된 문자는 한자다. 인류 최초 문자인 슈메르인의 설형문자, 이집트 상형문자는 기원 이전에 사실상 문자로서의 생명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또한 저자는 동아시아에서 기원 이전에 사용됐던 문자는 한족의 문자인 한자뿐이라고 본다. 한자의 자장 안에 있었기에 동아시아 문명은 ‘한자 문명’으로” 내려왔다는 것이다. 즉 한자는 이후 발명된 동아시아 문자들의 ‘레퍼런스’라는 의미다.

“‘청사진 복사’에서 ‘아이디어 확산’에 이르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어느 한 지점에서 한자라는 문자의 선례를 참고해 만들어졌다. 한자에 비해 최소 2500년 이상 늦게 발명된 일본의 가나, 가나보다 몇백 년 뒤에 발명된 한국의 한글, 베트남의 쯔놈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동아시아 문자들은 ‘문화적으로 우세한 반면, 언어가 상이한 한자에 대한 수용과 변형, 모방과 창조라는 대립의 산물’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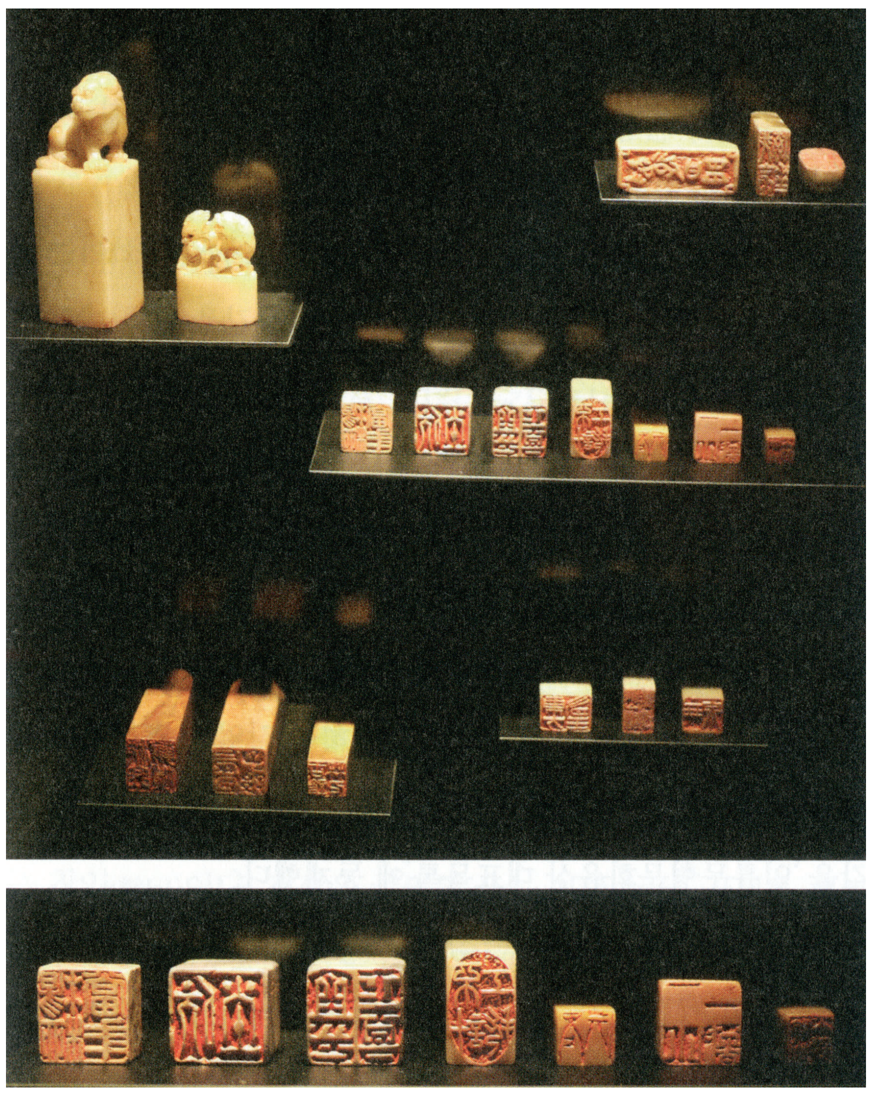
앞서 언급한 대로 동아시아는 오브제로서의 문자를 모티브로 문자예술을 펼쳐왔다. 문자를 일컬어 ‘보이는 말이자 읽히는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여기에는 문자를 매개로 한 예술인 서예를 비롯해 현대적 변용인 캘리그래피와 문자를 새기는 전각과 서각이 해당한다. 또한 문자를 꾸미는 문자도와 타이포그래피 등도 범주에 든다.

저자는 근대 이후 아시아 미를 탐색하는 일은 자기 완결의 과업이 아니라고 본다. 서구의 참조를 매개로 같고 다름을 되묻는 열린 과정으로 인식한다. 그러면서도 “‘중국적 세계 질서’ 안에서 전통 사회의 정체성을 추구해 온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여러 공동체는 ‘중국의 미’와 ‘서구의 미’라는 두 겹의 참조를 통해 ‘고유한 미’를 찾는 이중의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고 전제한다.

결국 저자의 주장은 “모두가 함께 나누었던 경험을 되살리는 일의 절박함”으로 귀결된다. “동아시아가 공유했던 미의 기억을 발굴하고 키워 내는 일만큼 절실한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인가”라는 반문에서 이 책의 지향을 다소나마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서해문집·2만9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청 건륭 때 섬서성에서 출토된 산씨반.



전각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예술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김정희 종가 전래 인장(보물)’. 〈서해문집 제공〉

각각의 계절

권여선 지음

지난 1996년 장편 ‘푸르른 틈새’로 제2회 상상문학상을 통해 등단한 권여선은 그동안 오영수문학상, 이상문학상, 한국일보문학상, 동리문학상, 이효석문학상 등 유수의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다. 지금까지 소설집 ‘처녀치마’, 장편소설 ‘토우의 집’, ‘레가토’ 등을 펴내며 자신만의 소설세계를 구축해왔다.

이번에 권여선 작가가 작품집 ‘각각의 계절’을 발간했다.

이번 소설집에서 작가는 기억과 감정, 관계의 중핵으로 파고들며 한 시절을 세밀하게 추적한다.

소설집 처음과 끝은 ‘기억’을 주된 키워드로 하는 ‘사슴벌레식 문답’, ‘기억의 왈츠’가 나란히 배치돼 있다. 특히 전자는 권여선의 오랜 주제인 기억의 문제를 조금 더 안으로 밀고 들어간다.

이번 작품집 제목인 ‘각각의 계절’은 소설 ‘하늘 높이 아름답게’의 문장에서 따왔다. 즉 “각각의 계절을 나려면 각각의 힘이 들지요”가 그것이다. ‘하늘 높이 아름답게’는 72세에 병으로 사망한 ‘마리아’를 회상하는 성당 신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마리아가 어떤 인물인지를 재구성한다. 신도들은 각자 마리아의 모습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시선에는 마리아를 자신들보다 아래에 놓는 은근한 배타성이 자리한다. 다른 이를 평가하는 가차없고 배타적인 시선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편 권희철 평론가는 “평범한 언어로는 도무지 포착할 수 없는 일상의 미묘하고도 미세한 영역들을 더듬고 묘사하면서 거기에서 시간의 흐름을 뒤집어놓기에 이를 만큼 격렬한 정동이 범람하게 만드는 권여선의 내러티브는, 소설 속 요소로 노래를 활용하고 있다기보다 ‘이야기로 된 노래’가 되어가는 것만 같다”고 평한다. 〈문학동네·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그들은 왜 최후의 승자가 되지 못했나

한순구 지음

도발적인 제목은 눈길을 끌기 마련이다. 특히 승패와 관련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사람들은 누구나 승리하고 싶고 앞서 나가길 원한다. 그러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어서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기 마련이고 일등이 있으면 꼴찌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연세대 경제학부 한순구 교수가 쓴 ‘그들은 왜 최후의 승자가 되지 못했나’는 역사속 인물들과 사건을 게임이론으로 분석했다. 전공이론이 게임이론과 법경제학인 한교수는 경제 외에도 생물이나 역사, 스포츠 등 다른 분야에서 경제학 이론을 적용하고 분석하는 일에 관심이 많다.

게임이론은 “계획하고 실행하는 ‘전략’과 ‘선택’을 체계적으로 깊이 연구하는 학문”을 뜻한다. 저자는 역사를 게임이론이라는 렌즈를 통해 들여다본다.

책에 등장하는 13개 사건의 주인공들은 전쟁에서 패하거나 국가 운영의 실패를 경험했다. 그럼에도 저자는 역사 속에서 큰 실패로 끝난 결정이라 해도 100% 틀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본다. 또한 책에는 실패를 되돌릴 처방이 다양한 게임이론과 함께 기술돼 있다. 한 예로 유방을 위해 싸웠지만 토사구팽 당한 한신의 경우에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상하며 현재 행동을 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편 이익주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는 “항우와 한신, 당 태종 이세민과 김춘추, 가마쿠라 막부와 오다 노부나가, 나폴레옹과 로버트 리 장군, 고르바초프 등 한국사와 동서양사를 넘나들며 재밌는 역사 읽기에 빠지다 보면 어느새 역사적 성공과 실패에 대한 게임이론의 분석을 접하게 된다. 역사학과 경제학의 진정한 융합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평한다. 〈삼성글로벌리서치·1만9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끌어 안는 소설

정지아 외 지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을 테마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소설집이 나왔다.

‘끌어 안는 소설’은 우리 시대 대표작가 정지아, 손보미, 황정은, 김유담, 윤성희, 김강, 김애란 작가의 단편을 모은 책으로 시대에 따라 변해가는 가족의 모습을 보여준다.

정지아의 ‘말의 온도’는 남편과 자식에게 모든 것을 맞춰가며 살아야했던 늙은 어머니의 삶을 이제 어머니가 된 딸의 시선으로 들여다본 작품이며 ‘담요’는 좋아하는 록밴드의 콘서트에 갔다 사고가 나 목숨을 잃은 아들을 잃고 상실감에 빠진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렸다.

황정은의 ‘모자’는 자꾸만 모자로 변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연약한 삶을 그리고 있으며 김유담의 ‘멀고도 가벼운’은 어릴 적 자신에게 큰 영향을 끼친 ‘보배 이모’의 억척스러운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냈다.

윤성희의 ‘유턴 지점에 보물 지도를 묻다’는 전통적 가족의 개념에서 벗어난 네 명의 인물을 통해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김애란의 ‘플라이데이터리코더’는 할아버지, 삼촌과 함께 사는 아이가 한번도 본 적 없는 엄마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끌어안는 방법을 보여준다.

김 강의 ‘우리 아빠’는 생산 인구의 감소, 노인 인구의 증가, 출생률 저하라는 현실에 부딪힌 국가가 정책적으로 ‘우리 아빠’의 정자와 ‘우리 엄마’의 난자를 수정해 ‘우리 아이’를 생산해 사회에 편입시키는 미래 사회 가족의 모습을 그린다. 창비 교육에서 출간하는 테마 소설 시리즈 여덟번째 권으로 지금까지 노동을 주제로 한 ‘땀 흘리는 소설’, 우정을 주제로 한 ‘함께 걷는 소설’ 등이 나왔다. 〈창비·1만7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